올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 '천하 맹인이 눈을 뜬다' · 정읍 '달에 깃든 나무'

남원 '월매를 사랑한 놀부' · 임실 '필봉연가' · 고창 '굿피는 모양마을' 등 5곳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전주시 · 정읍시 · 남원군 · 임실군 · 고창군 5개소의 프로그램을 '2017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으로 선정했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도내 전통자원인 한옥경관과 공연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8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공연 관람객수는 총 2만3,691명으로 이 중 62.2%인 1만4,756명이 유료 관람객이었고, 총 수입은 1억 6070여만 원이었다. 또 전북지역 내 300여명(파트타임 포함)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약 11억 원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효과가 있었다.

올해 선정작인 전주시(전주문화재단)의 마당창극 '천하 맹인이 눈을 뜬다'는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맹인잔치 대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또 정읍시((사)한옥마을사람들)의 '달에 깃든 나무'는 정읍출신 정순왕후의 생애를 통해 정읍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서사총체극이다. 남원군(남원시립국악단)의 광한루연가v '월매를 사랑한 놀부'는 월매와 놀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사기꾼 변가 일당을 나무라는 이야기다.

임실군(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춤추는 상쇠-필봉연가'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임실 필봉농악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연희극이다. 고창군(고창농악보존회)의 '굿피는 모량마을'는 상복이의 기이한 행동들과 미스터리를 파헤쳐 나가는 과정과 고창의 보름굿 과정을 병렬구조로 교차 진행되는 미스터리 감성농악이다.

재단 관계자는 "공연 이외에도 한옥자원 활용 및 모객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이번 심사를 통해 기존의 공연을 업그레이드 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한 시 · 군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참신한 공연을 구성한 시 · 군들을 보며, 지속가능한 공연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연의 대중성과 작품성을 높여 더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과 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생문동,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선정

군산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신양희 · 이하 군산생문동) '우리동네, 사(4)생활(기획,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2017 문화기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군산시는 군산생문동 프로그램이 (재)생활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은 마을과 지역, 전국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확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되 군산생문동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활문화를 즐기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동호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 전시, 공연, 체험의 방법으로 생활문화를 즐기게 된다.

특히 오는 6월 진행될 '문화가 있는 주간'을 통해 예술의 전당 전시실과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동호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명화의 감동 느끼세요"

전북대박물관 매주 목요일

다시 보고픈 명작영화 무료 상영

'명화의 감동, 매주 목요일 전북대 박물관에서 만나요.'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매주 목요일 다시 보고 싶은 명작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료 영화 상영은 '목요시네마 뮤즈(MUSE)'라는 타이틀로 오는 9일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9일 '의궤, 8일간의 축제'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3월에는 우리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4월에는 놓치지 아까운 숨은 걸작들이 상영된다.

또한 5월에는 '꼬마 니콜라' 등 동심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영되는 것을 비롯해 6월에는 전쟁, 7월에는 브라질 영화, 8월에는 인상적인 전기영화, 9월에는 특별한 우정을 담은 명작들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10월에는 프렌치, 11월에는 고전 명작, 12월에는 21세기 위대한 100선 중 명작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김성규 박물관장은 "전북대 박물관은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목요시네마 뮤즈를 통해 많은 지역민들과 구성원들이 박물관을 보다 친숙하게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영화 상영 문의는 전북대 박물관 홈페이지 및 학예연구실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자연과 인간의 존엄성 하얀 종이 위에 고스란히

전주미술관, 도내 여류작가시리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김주연' 전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열어

전주미술관(관장 김완기)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중견 여류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 및 발굴하여 지역미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북지역 여류작가시리즈'를 기획했다.

미술관은 시리즈의 첫 번째 전시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김주연' 초대전을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다.

수채화가 김주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20여년의 세월이 결집된 인물 시리즈와 다양한 모습의 자연이 가진 이치를 순화된 아름다움으로 담아낸다.

김 작가의 작업 표현법은 하얀 종이 위에 붓이 스쳐 지나며 때로는 차분한 묵직함으로 때로는 청초한 애절함으로 물감의 농도에 따라 변하고 이입된 여러 가지 감정을 작품으로 호소해낸다. 또한 번짐의 미학을 자신만의 과감한 터치와 섬세한 붓감으로 표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색다른 시원함을 자아내게 한다.

전시는 풍경 · 사람 · 닭(꽃) 테마로 구성된다.

'자연동 가는 길에' '향수' '마음의 풍경' '내장산에서' 등이 전시되는 〈풍경〉은 한편의 시를 쓰 듯 소박하면서도 서정성 짙은 풍경으로 표현된다.

〈사람〉 테마는 'Cantabile' 시리즈와 '사색' '아름다운 날에' 등을 통해 끝없이 사색하고 고뇌하는 인물의 대변으로 창조와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닭&꽃〉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선' 등의 닭을 표현한 작품을 비롯해 꽃은 꽃이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답기 만한 꽃이 아닌 작가 스스로에게 작업에 대한 의지를 되묻고 열정을 토로하며 갈망하는 페르소나로 '열정' '사랑-꽃을 피우다' '축복'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등을 선보인다.

최미남 학예실장은 "김주연 작가의 전시를 통해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엄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편안한 감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전북은행은 29일 오후 7시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9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국악을 접목시켜 공연을 펼치는 퓨전국악 전문 '문화포럼 나니레'가 국악뮤지컬 '행복배달부, 희야!'를 선보이며,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엔터테인먼트'도 식전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공연은 극 주인공인 희야가 다섯 가지 테마의 흥겨운 노랫가락과 춤추기 좋은 활달한 장단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음악을 국악 선율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은 8세 이상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공연관람 접수는 19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안재용 기자

▶▶ 공연 & 전시 ◀◀

남원 수지미술관 '한마음 One Mind' 전

새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교외의 미술관이라면 더욱 안성맞춤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원 수지면에 자리 잡은 수지미술관(대표 박상호)을 방문하면 될 듯 하다.

수지미술관은 정유년을 맞이하여 첫 기획 초대전시로 "한마음 One Mind"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현대 미술을 이끌어 온 민경갑(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활동 중인 60여명의 작가들과 남원의 지역작가 10여명이 회화, 조각, 공예, 설치작품을 선보여 지방미술관이라는 지역적 핸디캡을 무색케 하는 품격 있는 전시로 꾸며진다.

대표 작가로는 신장식, 이상봉, 박영근, 이목을, 이철량, 엄혁용, 임영재, 임형준, 김일해, 조현동, 이철규, 정욱장 등이며, 전시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옥천골미술관 '시간 속, 풍경을 탐하다'

순창 옥천미술관이 7일부터 4월 9일까지 '시간 속 풍경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강남구 화백 기획 초대전을 연다.

강남구 화백은 1964년 순창 금과에서 태어나 1992년도 조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28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다. 관련해서 전시회 오픈식은 10일 오후 4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에 전시하는 40여점의 작품은 목련, 매화, 해바라기 등 꽃과 열매, 섬진강 등의 자연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강화백의 작품들은 사실적이면서 목가적어서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안겨 준다. /순창=이양원 기자